

정부는 현재 추경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5.1.22. 조선일보는 「“민생·산업 지원 필요하다” 최상목이 띄운 추경론」 기사에서,
- “정부는 지역화폐를 구매한 주민들에게 10~20%의 할인 혜택을 주는 데 중앙정부 예산을 쓰자는 민주당 주장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. 정부는 도로, 철도 등 SOC 분야 유지·보수 사업, AI 관련사업,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망 확충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추경안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재정부 입장>

- 정부는 현재 추경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추가적인 재정투입 방안은 향후 국회·정부 국정협의회가 가동될 경우 ‘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’는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할 사안입니다.

담당 부서	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경국 (044-215-7130)
		담당자	사무관	하치승 (hcs017@korea.kr)